

97.3.14

학력·성별 임금격차 줄어

대기업-중소업체 차이는 최근들어 되레 커져

학력·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는 줄어든 반면 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박원구)이 펴낸 임금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고졸자를 1로 봤을 때 대졸자의 임금 비율은 91년 1.79에서 93년 1.61, 95년 1.56으로 낮아졌다.

또 생산직 노동자에 대한 사무직 노동자의 임금 비율도 91년 1.39에서 93년 1.33, 95년 1.29, 지난해 1.24로 격차가 좁아졌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임금 비율은 91년 1.83에서 93년 1.77, 95년 1.68, 지난해 1.64로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5백인 이상 대형 사업장에 대한 10인~30인 사업장의 임금 비율

은 91년 1.41에서 94년 1.38로 낮아졌다가 95년 1.40, 지난해 1.43으로 다시 높아져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농업을 뺀 국내 전산업의 명목상 월 평균 임금은 1백36만8천 원으로, 87년의 38만7천원에 비해 10년새 3.5배로 높아졌다. 이는 10년 동안 연평균 14.6%씩 높아진 것이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지난해 96만4천원으로 87년의 47만5천원보다 2배 가까이 됐다. 오룡 기자